

베드로 전서는...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스물한 번째 신약성경이다. 특정 교회에 보낸 다른 서간과 달리 전 교회에 보낸 편지로, 당시 교회가 처한 공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 1·2·3서, 유다와 함께 ‘공동서간’, 또는 ‘가톨릭서간’이라 불린다.

저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실바노에게 받아 적게 했다고 하지만 (1,1;5,12) 사실과 다르다.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점, 아람어를 쓰던 갈릴래아의 어부요 배우지도 못한 베드로가 정교하고 세련된 그리스어 문장을 구사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바오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표현(갈라 2장을 보면 두 사람은 거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 같다), 장로(5,1)와 같은 바오로 이후의 교회 제도가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은 베드로가 저자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바오로의 협력자요 이방인인 실바노가 베드로의 그러한 면을 보완해 썼다는 가설도 있지만, 실바노와 베드로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도 없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방계 그리스도인 중의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빌려 썼다고 여겨진다. 편의상 그를 베드로라 부른다.

저술 연대

1베드 5,13의 ‘바빌론’은 로마를 말한다. 로마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70년 이후, 바빌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던 것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다). 이를 볼 때 베드로 전서는 70년 이후에 쓰인 셈이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인 로마에서 65-67년경에 순교했다). 그리고 2세기 초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 전서를 잘 알고 있었고, 125년경에는 파피아스가 이 책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아, 쓰인 시기는 90년대 초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베드로 전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81-96)때, 박해의 범위가 로마를 벗어나 소아시아에까지 확대되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70-92년경 로마에서 쓰였다고 본다.

저술 목적

전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쓰였다. 당시는 황제 숭배가 관습화되면서 점차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81-96)때였다. (네로 황제(54-68)때에는 로마에서만 박해를 받았고, 네로의 뒤를 이은 두 황제는 박해하지 않았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비방과 모욕을 받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등 모진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하느님 앞에 의로운 일임을 힘 있게 일깨우면서, 그리스인답게 형제애와 선행을 계속하도록 권고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신도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과 하느님의 은총 위에 굳게 서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있다.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생겨나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 많은 신자들을 현혹시켰다 (2,18-19,22-23 ; 4,2-3). 이들은 하느님을 알고 있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1,6,8 ; 2,4), 하느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2,9-11 ; 3,10 ; 4,17-21). 이러한 현실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됨을 경고하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일러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인간으로 육화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임을 굳게 믿고 하느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 1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다. 요한 1서와 함께 요한계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쓴 ‘공동서간’이다.

저자

2서와 3서 모두 ‘원로’에 의해 쓰였다고 하는데(2요한 1절 ; 3요한 1절), 하느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제시하고(3요한 4-6절 ; 7-11절), 지역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는 역할 등을 한(3요한 5-8절) 것으로 보아 당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권위 있는 지도자였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를 예수의 애제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집필 연대

요한복음서가 쓰인(90년경) 이후, 영지주의가 퍼져 있었던 약 100년경 쓰였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고백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2요한 7절)에 대해 경고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단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2요한 10절)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필 목적

당시 요한계 교회에는 예수의 육화를 부인하며(2요한 7절) 신자들을 유혹하는(2요한 10절)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생겨났다(2요한 7절). 또한 어느 지역 교회에서는 원로가 써 보낸 서간을 무시하고(3요한 9절) 원로가 파견한 순회 전도자(설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원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예수의 육화를 고백하지 않는 ‘속이는 자’, ‘반 그리스도’(2요한 7절)들을 경계하고(2요한 10절)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잃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요한 2서를 썼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파견된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형제들마저 교회에서 쫓아낸 행동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전도자들을 위해 수고해 주는 진리의 협력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자 요한 3서를 보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간직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이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단자들의 그릇된 사상에 동조하지 말고, 언제나 하느님의 계명을 되새기며 사랑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일깨우고자 했다.

했을 뿐이라고 본다. 이 책의 저자는 사도들보다 후대의 사람으로(17-18절 참조), 유다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여겨지는데, “에녹서”와 “모세의 승천”과 같은 유다교의 묵시문학과 전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6.9.11.14절).

집필 연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1세기말에 쓰였다고 본다. 2세기 초에 쓰인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의 내용(4-19절)을 거의 다 인용하고 있다는 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1세기 후반에 쓰인 야고보서를 알고 있다는 점, 1세기 후반에 형성된 ‘초기 가톨릭적인’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점(3.20절), 이 편지에서 비판하는 이단자들은 요한묵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니콜라오파(묵시 2,6)와 비슷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집필 목적

당시에는 그릇된 가르침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이단자(거짓 교사)들이 교회공동체 내에 들어와 자유분방한 생활로 분열을 일삼고 있었다. 이에 이단자들의 실상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신자들이 그들과 싸우도록 북돋우고, 소중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3-4절). 또한 하느님의 사랑 받는 신도들이 이단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맡겨진 믿음에 충실하도록 일깨우고자 했다.

요한 1서는....

베드로 후서 다음에 나오는 스물세 번째 성경이다. 당시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단자들을 경계하는 호교(護敎)서로 요한계 모든 교회에 보낸 ‘공동서간’이다.

누가 썼나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휘와 문체, 사상이 요한복음서와 비슷하여 요한복음을 쓴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요한 21,24)를 따르던 사람]이 썼다는 이들도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예수의 애제자를 따르던 이들 중 복음서를 쓰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썼다고 본다. 이 저자가 다른 요한 서간(이서와 삼서)을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집필 연대

신과, 인간, 영과 육을 분리하여 영적인 면만을 중요시하는 영지주의가 퍼져 있었던 100년경 쓰였다고 본다. 요한 1서를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며(2,22-23) 예수의 육화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나온다(4,2-3). 또한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나시오가 110년경 아시아의 교우들에게 예수의 가현설(假現設)을 주장한 영지주의자를 조심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요한복음서가 쓰인(90년) 이후 100년경 아시아에서 쓰인 것으로 본다.

집필 목적

당시 요한계 교회 안에는 육화를 부인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 다음에 나오는 스물두 번째 성경이다. 당시 교회가 처한 공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정 교회가 아닌 전 교회에 보내진 편지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요한 1·2·3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간’이라 불린다.

저자

알 수 없다. 편지 서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썼다고 하나 (1,1) 사실과 다르다. 사도 시대 이후에 쓰인 유다서를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점이나, ‘조상들이 잠든 후’(3,4)가 사도 시대 이후를 가리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도 베드로가 아닌 어떤 신도가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자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빌어서 쓴 것으로 보인다.

집필 연대

바오로 서간들이 널리 알려져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고 또 사도성의 기준이 드러나기 시작한 사도 시대 이후, 2세기 초쯤 쓰인 것으로 보인다. 1세기 말경에 쓰인 유다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2,1-18), 바오로 서간을 성경의 권위와 같게 보는가 하면 (3,15-16) 바오로와 베드로의 사도적인 권위, 또 베드로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쓰인 성경으로 생각된다.

집필 목적

주님의 내림을 비웃는 이단자들로 인해 신앙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고 주님의 계명을 다시 기억할 것을 일깨우고자 쓰였다(3,1-4).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신자들이 생기는가 하면(2,1-2),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을 일삼으며 욕정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3,3-4)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주님의 뜻을 거슬러 불의를 저지르는 이단자들에게 내릴 하느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들의 그릇된 주장에 속지 말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주님의 날은 꼭 올 것이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계명에 따라 티 없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함을 전하고 있다.

유다서는...

요한 3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권 중 26번째 성경이다.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일·이·삼서와 함께 ‘공동서간’이라 불린다.

저자

편지의 서두에 “야고보의 동기인 유다”(1절)가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 유다는 예수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마르 6,3 ; 마태 13,55)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유다가 이 편지를 썼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예수의 형제 이름을 빌어 이 편지의 권위를 높이려